

후카가와 세이지의 역사와 이념

후카가와 세이지는 역사와 전통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카가와 가문이 자기 생산을 시작한 것은 1600년대 후반이며, 이후 후카가와 주지(1871~1934)가 1894년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주지는 아리타 지역의 또 다른 대형 도자기 생산업체인 고란샤 창립자 중 한 명인 8대 후카가와 에이자에몬(1832~1889)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고란샤가 공업품 도자기에 주력하던 것에 만족하지 못한 주지는 독립하여 디자인과 기술을 앞세운 예술 작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끌며 후카가와 세이지가 만든 대형 꽃병 한 쌍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금메달을, 1904년 세인트루이스 만국박람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1910년, 후카가와 세이지는 자기 식기 궁중 납품업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궁중 납품업자로 지정되는 것은 유럽 각국 왕실에서 발행하는 로열 워런트(왕실 납품업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황실의 공식 행사에서 백여 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후카가와 세이지와 같은 납품업자에게 교환과 추가를 의뢰합니다. 현대 장인들은 이러한 골동품의 모양, 디자인, 색, 무게에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새것이 오래된 것과 동일해지도록 가능한 한 원래의 틀과 기법을 사용합니다.

현재, 후카가와 주지의 4대와 5대 후손들이 이끄는 후카가와 세이지에서는 주로 일상용 식기와 장식품 등 3,000종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기준, 소속 장인 중 7명이 일반재단법인 전통적공예품산업진흥협회로부터 전통 공예사로 인정받았습니다.